

제1장 고인돌 유적

1. 보령지방 고인돌 분포의 특성

고인돌은 옛사람들이 만든 무덤이므로 사후세계(死後世界)가 반영되어 당시 사회의 주검에 대한 처리 의식인 묻기의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묻기는 고인돌 사회의 문화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믿음과 같은 정신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고인돌의 세계적인 분포 상황을 볼 때 동북아시아는 고인돌의 한 중심권을 이룰 만큼 유적이 집중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동북지역의 요령(遼寧)과 길림(吉林)에 분포하며, 일본은 서북 구주(九州) 지역에 많이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제주도부터 함북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북한지역은 평남과 황해도에, 남부지방은 전남의 전 지역과 전북의 고창, 충남의 보령, 경기의 강화 등 서해안지역에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보령지역의 고인돌은 조사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971년 이은창이 주산면 동오리와 삼곡리의 고인돌과 선돌을 학계에 보고한 후 이용조·하문식이 1990년에 10개 지역 61기, 1991년에 12개 지역 55기의 고인돌을 조사 발표하여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들은 보령 전 지역을 답사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된 고인돌이 많아, 황의호가 보령 전지역을 답사하여 2000년 「보령의 고인돌」을 발간한 바 있다.

보령지방의 고인돌은 권돌, 갯구할매바위, 칠성바위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섬지역과 오천면, 천북면을 제외한 전지역에 70여 곳 약 300기가 분포한다. 고인돌이 분포하는 곳을 지형별로 나누어 보면 구릉 위에 34곳 138기, 평지에 29곳 107기, 하천 주변에 9곳 33기로 낮은 구릉 위가 가장 많다.

면별 분포를 보면 남포면이 23곳에 110기로 가장 많고, 다음이 웅천읍으로 22곳에 79기가 분포한다. 고인돌이 가장 많은 마을은 웅천읍 죽청리로 무려 52기의 고인돌이

4· 고인돌유적

분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남포면 양기리 33기, 남포면 소송리 32기, 남포면 신흥리 29기 순이다. 모두 해안에 인접하고 평지가 넓은 지역이고, 고인돌을 만들 수 있는 암석의 노두가 많은 지역이다.

고인돌은 대개 집단적으로 분포하는데 보령지방 평균은 한 곳에 3.86기이다. 가장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곳은 웅천읍 죽청리 1지구로 15기, 주교면 신대리 10기, 남포면 신흥리 3지구 10기, 웅천읍 황교리 10기, 주산면 금암리 10기 등이다. 이런 곳에는 큰 고인돌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에 여러 작은 고인돌이 위치하여 고인돌 간에 신분이나 혈연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령의 고인돌」 책자에 수록된 고인돌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서해안고속도로공사, 국도이설공사 등으로 없어진 고인돌도 소개한다.

2. 청소면 고인돌



청소면의 고인돌 분포

1) 야현리 1지구 고인돌

청소면 야현리 513-1번지에 있는 고인돌이다. 21호 국도 서쪽에 있는 동보냉동 공장 서쪽 밭에 있다.

해발 고도는 불과 10여 m로 간척사업 이전의 해안선과는 300여 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고인돌 서북쪽 350m 지점의 돌뚝 마을에는 고인돌 제작에 적당한 많은 돌들이 노출되어 있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290×270×160cm, 둘레 805cm로 삼각뿔 모양이며 바닥은 평평하다. 무게는 약 12t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긴 방향은 북북서-남남동으로, 하천과 수직 방향이다. 덮개돌을 자세히 보면 원상태로 있는 곳은 북쪽 일부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잘려 나간 것으로 보인다. 경작의 어려움 때문에 없애려다 남긴 것으로 파악된다.

킴돌은 동쪽과 서쪽에 남북으로 나란히 있는데 막음돌은 보이지 않는다. 동쪽 킴돌은 편마암으로 수직 방향의 층리가 있어, 덮개돌과 층리 방향이 수직을 이루고 있다.

이 킴돌의 북쪽 부분에는 가로 28cm 높이 9cm 정도의 냇가에서 원마(圓磨)된 납작한 돌을 끼워넣어 수평을 맞추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이 고인돌은 21호 국도 개량 사업으로 훼손되었다.



야현리 1지구 고인돌(훼손 전, 1997)



야현리 1지구 고인돌(훼손 후, 2001)

2) 야현리 2지구(비야들) 고인돌

청소면 야현리 65번지 김수학 씨 댁 옆에 있는 2기의 고인돌이다. 이곳은 청소천의 범람원에 해당된다. 현 하천과는 200여m 떨어져 있으며 해발고도는 20m 정도이다.

1호 고인돌의 덮개돌은 편마암으로, 네모져 있고 긴방향은 북동-남서이다. 크기는 250×200×70cm, 둘레 660cm이다. 덮개돌의 높이는 서쪽에서 70cm, 동쪽에서 140cm이다. 덮개돌의 밑이 자갈로 채워져 하부구조는 보이지 않으나 킴돌이 동쪽부분에 고여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호 고인돌과는 150cm 떨어져 있다.

2호 고인돌의 덮개돌은 편마암으로 150×95×40cm, 둘레 370cm이다. 긴 방향은 1호와 같이 북동-남서이다. 킴돌은 보이지 않는다.



야현리 2지구 고인돌(2001)

3. 주포면 고인돌



주포면의 고인돌 분포

1) 연지리 1지구 고인돌

주포면 연지리 739번지에 있는 4기의 고인돌이다. 이곳은 연지리 가줄 마을 중앙으로 태봉산에서 내려온 작은 구릉 사이의 평지이다.

관산리에 있는 고인돌과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저녁에는 상대 쪽에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가장 큰 2호 고인돌은 흑색 사암으로 만들어져 견고하게 보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385×310×125cm이다. 덮개돌의 남쪽 부분은 두껍고 동쪽으로 갈수록 낮아 30° 정도의 경사를 이룬다.

동쪽 끝의 두께는 40cm 정도이고 긴 방향은 북북서-남남동 방향이다. 토지 주인이 치성을 드리기 때문에 훼손의 염려는 적다. 1호와는 약 8m, 3호와는 약 120cm 거리에 있다.



연지리 1지구 고인돌(1997)

2) 연지리 2지구 고인돌

주포면 연지리 답(畓) 337-9 번지, 가줄 마을 서남쪽 골짜기에 있는 큰 고인돌이다.

이곳은 연지리 3지구의 서쪽 골짜기로 해발 고도 약 25m인 완경사지이다. 현재는 모두 논으로 개간되고 경지정리 되었다.

덧개들은 층리가 뚜렷한 사암 기원의 변성암으로 크기는 430×280×100cm이며 긴 방향은 북동-남서이다. 고인돌이 있는 부분을 논둑으로 처리하여 꺾음돌은 보이지 않는다.



연지리 2지구 고인돌(1997)

3) 연지리 3지구 고인돌

주포면 연지리 438-6번지, 연지리 가줄 마을에서 칩머리 마을로 넘어가는 이미재의 서북쪽 언덕에 있는 3기의 고인돌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현 도로의 동남쪽에 2기, 도로 서북쪽에 여러 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동쪽의 것은 모두 없어지고 서북쪽의 것도 3기만 남아 있다.

1991년 이용조·하문식이 조사할 때만 하여도 이곳에 4기의 고인돌이 있었는데 현재는 3기만이 남았다. 이것도 1기는 옮겨진 상태라 원위치 그대로 있는 것은 2기뿐이다.

이곳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지역으로 돌화살촉, 돌자귀, 돌괘이 등이 많이 출토된다.

1호 고인돌은 가장 북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수평의 층리를 이루는 사암으로 된 덧개돌은 20°정도 동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덧개돌의 크기는 325×220×50cm, 둘레 940cm로 잘 다듬어져 있고 상부와 하부는 평평하다. 꺾음돌은 서남쪽에 1개가 세워져 있는데 크기는 185×120×30cm로 수직의 층리 구조를 가진 사암으로 아직도 수직으로 서 있다. 꺾음돌이 높은 것으로 보아 탁자식인데 동북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긴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이다. 2호와의 거리는 480cm이다.



연지리 3지구고인돌(1997)



연지리 3-1호 고인돌(1996)

4) 연지리 4지구 고인돌

주포면 연지리 133번지에 있는 7기의 고인돌이다. 주포면 연지리 연적굴(연정동)에서 봉당리 고내미(고남동) 마을로 통하는 도로의 동쪽에 있다. 1호 고인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열을 이루고 있다.

고인돌이 있는 언덕은 보령 지방에 넓게 나타나는 단구지형으로 높이는 35m 정도이다. 고인돌 주변은 기반암이 노출되지 않았으며 점판암 부스러기가 많이 퇴적되어 있다. 이곳은 오천면 교성리 청동기 집자리 발굴 지역과 3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며 서쪽에는 아현산성이 있다. 동쪽으로 봉당천이 지나고, 넓은 들을 이루고 있다.

1호 고인돌은 연지리 4지구에서 가장 남서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덮개돌의 크기는 365×155×140cm, 둘레 825cm이다. 덮개돌은 거의 전면에 걸쳐 손질을 한 흔적이 보이며 전체적인 생김새는 배 모양이다. 석질은 퇴적암 기원의 편마암으로 석영 역(礫)이 보이고 입자가 큰 석영 결정도 보인다.

장축의 방향은 북북동-남남서이다. 북쪽에서 넓고 남쪽에서 좁은 형태이다. 두께는 동쪽이 125cm로 두껍고 북쪽(50cm)과 남쪽(70cm)이 얇다.

북동쪽과 서쪽에는 킴돌이 보이는데, 북동쪽의 것은 145×65×50cm 정도로 상당히 큰 편에 속하며 지표에 노출되고 덮개돌 밖으로 일부가 노출되어 있다. 석질은 편마암으로 덮개돌과 비슷하다. 서쪽에 있는 킴돌은 표면이 매끈하게 보이고 노출된 부분의 크기는 50×15×15cm이며, 덮개돌과는 석질이 다르다. 덮개돌 밑에는 밭에서 나온 듯한 주먹만한 돌이 많이 쌓여있다. 2호와 650cm 떨어져 있다.



연지리 4지구 고인돌(1997)



연지리 4지구 1호 고인돌(1997)

5) 관산리 고인돌

주포면 관산리 402-1 번지에 위치한 2기의 고인돌이다. 관산리의 남쪽 능선 즉, 주교면 주교리와외의 경계에 위치한다. 이곳의 해발고도는 35m로 서쪽과 남쪽, 북쪽에 넓은 평지가

펼쳐지는 낮은 언덕이다. 동쪽에는 해발 356.9m의 배재산이 이어져 암석의 채석지로 이용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곳 북쪽 600여m 지점에 있는 대천전문대학 부지 조성 때 청동기 시대 집자리와 여러 유물이 발굴되었다.

이 2기의 고인들은 남북으로 나란히 5.2m 간격으로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남쪽의 고인들을 1호라고 하고 북쪽의 고인들을 2호라고 하였다.

1호 고인들은 퇴적암 기원의 편마암으로 되어 있는데, 덮개돌은 240×160×80cm, 둘레 602cm이다. 긴 방향은 북북동-남남서이고 전체적으로 다듬어진 느낌이며 동북쪽에 훼손된 흔적이 있다. 받침돌은 동북쪽에 1개 있는데, 남북 방향으로 놓여 있고, 크기는 110×80×35cm이며 아주 평평하다. 동북쪽에서 덮개돌 밖으로 나와 있다. 석질은 덮개돌과 비슷한 편마암이다.



관산리 고인돌(1997)



관산리 1호 고인돌(1997)

4.주교면 고인돌



주교면의 고인돌 분포

1) 관창리 고인돌

주교면 관창리 335-1번지, 관창초등학교 앞에 형제바위로 불리는 3기의 고인돌이다. 가까운 관창공단 부지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방형주구묘, 건물지, 무논 등이 발견된 바 있으며 북쪽 2km 지점의 대천전문대학 부지에서도 다량의 청동기 시대 유물이 발견된 바 있다.

21호 국도보다 약 1.5m 정도 낮았으나 1987년 12월, 88올림픽에 대비한 성화 봉송로 정비 사업의 하나로 고인돌 공원을 조성하면서 지면을 높이고, 1기를 옮겼다.

주민들에 의하면 과거 고인돌 주변에서 돌칼 1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최근 21호 국도의 우회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고인돌 위에 다리를 설치하였다.

1호 고인돌과 2호 고인돌은 도로 밑에 있다. 1호 고인돌의 크기는 310×240×200cm로 메주 모양이다. 둘레는 955cm이며 비교적 잘 다듬어져 있다. 2호 고인돌은 관창리 지구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다. 덮개돌은 퇴적암 기원의 변성암으로 변성 작용을 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1·3호 고인돌과는 달리 암석 속에 역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덮개돌의 크기는 450×288×230cm이며, 둘레는 1,180cm, 긴 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길이가 무려 450cm에 이른다.

핍돌은 남북에 동서 방향으로 2개 있는데 북쪽의 것은 180×60cm, 남쪽의 것은 170×50cm의 크기이다.

핍돌은 작은 역이 많이 섞여 있는 변성암으로, 덮개돌과는 외견상 다른 돌이다.

3호 고인돌은 공원으로 옮겨져 있다.



관창리 고인돌(1997)



관창리 1호 고인돌(1997)

2) 신대리 고인돌

주교면 신대리 474 번지 벌말 이규대 씨 덕 울 밖에 1기, 울안에 9기, 합하여 10기의

고인돌이 있다.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하천과 50여m 떨어진 해발 25m 지점으로 하천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탄한 퇴적지형이다.

이곳에 있는 고인돌의 특징은 사방 20m 내외의 좁은 공간에 10기의 고인돌이 있다는 점이다. 고인돌의 크기는 작은 편이다. 북쪽 담밖에 있던 1기의 고인돌은 땅에 묻었다고 하며 고인돌 주변에서 1986년 돌칼 1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10기의 고인돌을 서쪽의 7기와 동북쪽의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1호 고인돌은 북쪽 담장 옆에 있는 고인돌이다. 덮개돌은 사암이며 크기는 200×170×155cm, 둘레 600cm로 상당히 두꺼운 고인돌이다. 메주같이 보이며 긴방향은 동-서 방향이다. 덮개돌의 남쪽 부분에는 사암으로 된 킴돌이 동서 방향으로 있는데 크기는 120(길이)×30(폭)×20(높이)cm이다.

3호 고인돌은 덮개돌이 역암으로 200×180×50cm, 둘레 635cm이다. 덮개돌은 킴돌에 의해 지표에서 10cm 정도 들려 있는 상태이다. 북쪽과 남쪽에 동서 방향으로 킴돌이 있고 서쪽에 남북방향의 막음돌 1개가 있다.

7호 고인돌은 고인돌군의 중앙에 있는 고인돌이다. 백색을 띠는 사암으로 된 덮개돌의 크기는 260×210×75cm, 둘레 760cm이다. 남쪽의 두께는 75cm, 북동쪽은 약 50cm로 북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형태이다. 긴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이다.

8호 고인돌은 고인돌군의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고인돌이다. 역이 조금 섞인 사암으로 된 덮개돌은 245×225×65cm, 둘레 795cm 크기로 상부는 평평하고, 둘레도 다듬은 모습이다. 긴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이다. 이 고인돌은 탁자식으로 킴돌의 높이가 55-60cm에 이른다. 킴돌은 동쪽과 서쪽에 있는데 크기는 160(길이)×25(폭)×55cm(높이), 130(길이)×35(폭)×60cm(높이)이다. 무덤방은 남북 방향으로 되어 있으며 폭은 65cm이고 길이는 200cm나 되어 어른을 바로 매장할 수 있는 크기이다. 서쪽 킴돌 위에는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3개의 작은 돌을 괴어 놓았다. 막음돌 남쪽에는 막음돌보다 낮게 120×80×15cm 썸 되는 평평한 돌이 놓여 있어 주목된다. 7호와 150cm 떨어져 있다.



신대리 고인돌(1997)



신대리 고인돌(1997)

12 • 고인돌유적

9호 고인돌은 맨 동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역암으로 된 덮개돌은 남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모습이며 크기는 170×160×50cm, 둘레 525cm이며 다듬어진 모습이다. 8호 고인돌처럼 탁자식 고인돌로 분류할 수 있는데 궂돌의 높이는 55-60cm 정도이다. 궂돌은 남북으로 있는데 동쪽 부분에 치우쳐 있어 서쪽은 덮개돌이 땅에 닿아있다.

3) 주교리 고인돌

주교면 주교리 산 62-1에 있는 고인돌이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주교면 주교리이지만 주포면 연지리와 1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사암으로 된 덮개돌은 380×230×115cm, 둘레 940cm의 크기이며, 표면은 평평하다. 덮개돌의 긴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산 능선 방향과 비슷하다.



주교리 고인돌(1998)

덮개돌의 남쪽 부분에 수직의 층리를 가진 궂돌 1개가 있는데, 크기는 140cm × 45cm이며 노출된 부분의 높이는 15cm 정도이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이라 공사 중 없어졌다.

5. 화산동 고인돌



화산동의 고인돌 분포

1) 화산동 1지구 고인돌

화산동 646번지, 동대동 두러미 마을 옆에 있는 2기의 고인돌이다. 해발 고도는 20m 정도이고, 주변은 낮은 구릉과 구릉 사이의 평지로 구성되어 있다. 고인돌 사이의 간격은 320cm이며 동서로 나란히 있다. 이 고인돌을 주민들은 범바위라고 부르는데 옛날 호랑이가 이곳에 앉아 불을 켜다는 전설이 있다.

1호 고인돌은 서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수평의 층리를 가진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의 크기는 200×130×120cm, 둘레 625cm의 크기로 가로나 세로에 비하여 높이가 높아 메주모양을 이룬다. 둘레는 다듬은 모습이다.

덮개돌의 동쪽 부분에 킴돌이 2개 있으며, 논의 개간으로 인하여 하부가 드러나 있다. 긴 방향은 북서-남동이다.

2호 고인돌은 1호 고인돌의 동쪽에 있다. 수평의 층리를 가진 퇴적암 기원의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160×150×100cm의 크기이며, 동쪽으로 약 15°쯤 기울어져 있다. 덮개돌의 하부는 평평하고 다듬은 흔적이 뚜렷하며 상부는 굴곡이 많다. 덮개돌이 논둑에 있어 통행에 방해되자 여러 곳에서 떼어낸 흔적이 있다.



화산동 1지구 고인돌(1997)



화산동 1지구 1호 고인돌(1997)

2) 화산동 2지구 고인돌

화산동 535-3번지 굴고개 화현주유소 뒤에 있던 7기의 고인돌이다. 필자가 1995년 조사할 당시에는 3기의 고인돌이 노출되었으나 1997년 국도 36호의 우회도로 공사 때 발굴한 결과 7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다. 이 중 3기의 고인돌은 도로 옆에 이전 복원하였고 나머지 4기는 없어졌다.

충청 매장문화재 연구재단에서 발굴한 후 1997년 9월 「文化遺蹟 發掘調査 略報告書」가 발간되었다.

14 • 고인돌유적

1호 고인돌은 고인돌군의 남단에 위치하는 가장 큰 고인돌이다. 덮개돌의 평면 중앙에 ‘漢陽趙氏墓村’ 비가 세워져 있었다. 덮개돌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고 단면은 역삼각형이다. 장축방향은 16.5° 편동되었고 크기는 장축 420cm, 단축 250cm이며 무게는 22t이다.

덮개돌을 중심으로 4등분하여 조사한 결과 남쪽에 2개의 꺾돌이 세워져 있었고, 북쪽에 1개의 꺾돌이 있어 덮개돌을 받쳤다.

묘역을 조성한 부석 시설과 매장 주체 시설인 토광 또는 석곽 시설은 탐색 조사 결과 확인되지 않았다. 도로 옆에 이전 복원하였다.

2호 고인돌은 1호에서 서쪽으로 200cm 지점에 위치한다. 조사 당시 덮개돌이 서쪽으로 기울어져 1/2 가량 묻힌 상태였다. 형태는 장방형이나 난형(卵形)에 가깝고, 크기는 장축 280cm, 단축 170cm이며, 무게는 11t이다. 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4등분하여 정리한 결과 지층이 불완전하고 모래층이 두텁게 쌓여 있는 상태였다.

덮개돌을 제거하자 북쪽에 1개의 꺾돌과 동편에 2개의 꺾돌이 놓여 있었다. 부분적인 부석을 제외한 매장 주체 시설로 보이는 토광 또는 어떠한 유구 시설도 보이지 않았고, 명갈색의 생토층이 확인되었다. 도로 옆에 이전 복원하였다.



화산동 2지구 1호 고인돌(1997)



화산동 2지구 1호 고인돌(1998)

3) 화산동 3지구 고인돌

화산동 512-7에 있는 고인돌이다. 화산동 화현가든 북쪽, 청라면과의 접경인 국도 36호선의 서쪽 발둑이다. 해발고도는 55m 정도이며 사방이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다. 국도 36호선 이설공사로 2지구와 함께 발굴되었고, 발굴 후 원 위치에 원래대로 놓았다.

덮개돌의 규모는 장축 280cm, 단축 230cm으로 결실된 부분을 도상 복원한 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남북을 축으로 20° 편동된 상태이며 무게는 덮개돌 파편을 포함하여 총 21t이다.

뒷개돌 아래로 2개의 꺾돌이 있다. 규모는 동편의 꺾돌이 길이 97cm, 너비 52cm, 높이 65cm, 서편의 꺾돌이 길이 100cm, 너비 50cm, 높이 67cm이며 꺾돌간의 거리는 36cm이고, 꺾돌을 놓기 위한 굴광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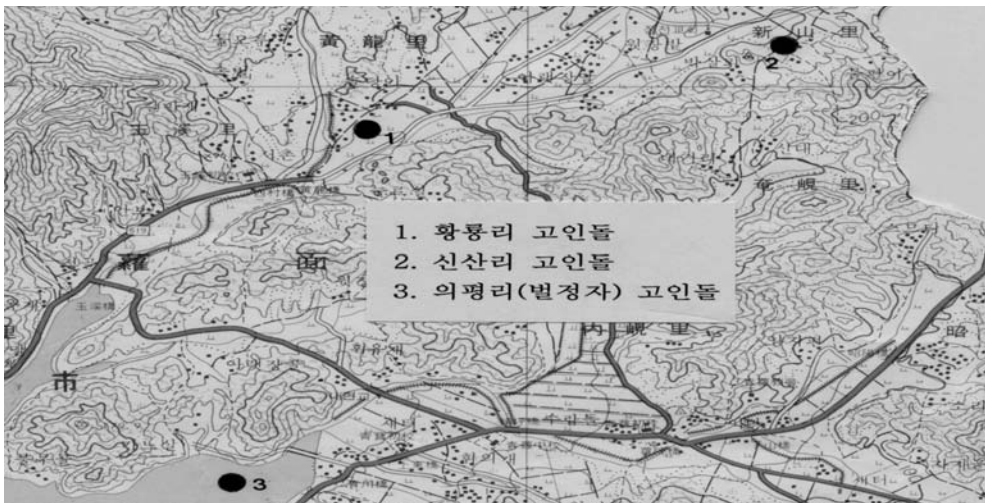


화산동 3지구 고인돌(1997)

꺾돌과 꺾돌 사이의 남북 벽면은 할석을 세워 마감하여 반 지하식 무덤방 형식을 갖춘 것으로, 규모는 36×65×66cm이며 형태는 장방형이다. 내부 바닥은 별도의 부석 시설은 없고 점성이 강한 갈색 점질토로 꺾돌 외곽 부분과 동일하게 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덤방 형식을 갖추었으며, 내부에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6. 청라면 고인돌



청라면의 고인돌 분포

1) 황룡리 고인돌

청라면 황룡리 사거리들에 있는 2기의 고인돌이다. 하부는 자갈, 상부는 참흙으로 된 퇴적층 위에 만들어진 고인돌이다. 이곳은 오서산 아래에 펼쳐진 평탄 대지의 하부로 해발고도는 60m 정도이다.

16 • 고인돌유적

1호 고인돌은 황룡리 858-1에 위치하는 고인돌로 주민들은 배바위라고 부른다. 퇴적암 기원의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430×320×46cm, 둘레 1270cm 크기이다. 상부는 평평하고 하부는 가운데가 약간 볼록한 형태이며, 둘레는 다듬은 흔적이 뚜렷하다. 동북쪽이 좁고 높으며 남서쪽이 넓고 낮아 배 모양이다.



황룡리 1호 고인돌(1995)

긴 방향은 북동~남서이다. 경지정리 공사 때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형대로 보존되었다. 2호 고인돌과 함께 배바위 돛대바위 전설이 전해진다.

2) 신산리 고인돌

청라면 신산리 산 143-3번지의 서북쪽 끝 도로변에 1기의 고인돌이 있다. 이곳은 낮은 구릉의 말단부로 구릉과 평지가 접하는 곳이다.



신산리 고인돌(1995)

해발 고도는 110m 정도이지만 주변과의 비고는 3-4m밖에 되지 않는 언덕이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300×135×120cm, 둘레 8m이다. 바닥은 극히 평평하고 둘레는 다듬은 흔적이 있다.

덮개돌의 북쪽과 남쪽에는 납작한 킴돌이 있다. 무덤방의 폭은 1m이다.

3) 의평리 고인돌

청라면 의평리 가느실 마을 앞 청천저수지 안에 있는 고인돌이다. 이곳은 청천저수지 축조 전에 별정자라는 마을이 있었고, 큰 은행나무가 있었다. 은행나무 그루터기 옆에 5기,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350m 정도 떨어진 곳에 1기가 있다.

해발고도는 35m 정도이다. 고인돌 주변은 자갈 무더기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고인돌이 있어 개간하지 못하고, 주변 논에서 나온 돌을 모아 놓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1호 고인돌은 청천저수지 안에서 가장 큰 중심 고인돌이다. 긴 방향으로 층리가 있는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346×140×165cm, 둘레 910cm의 크기이며 둘레는 불규칙한 모습

이다. 바닥은 평평하고 남쪽 면은 경사져 있다. 북쪽 면은 비교적 평평한 편이고 서쪽 하부에는 길이 65cm, 높이 60cm, 폭 100cm 정도로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다. 뿔돌은 서쪽 떨어져 나간 부분 밑에 있는데 노출된 부분의 길이 55cm, 폭 45cm, 노출된 높이 13cm이다. 이 뿔돌은 덮개돌과 맞닿지 않아 덮개돌의 하부가 떨어져 나갔음을 알 수 있다.

5호 고인돌은 청천저수지 안에 있는 고인돌군의 가장 서쪽에 있는 작은 고인돌이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172×125×50cm, 둘레 500cm이며 긴 방향은 동서 방향이다.



의평리 고인돌(1995)



의평리 5호 고인돌(1995)

7. 성주면 개화리 고인돌



성주면의 고인돌 분포

성주면 개화리 116-1, 석탄박물관 남쪽 성주천과 40호 국도 사이에 있는 고인돌이다. 이곳 성주면은 중생대 퇴적암의 높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고인돌 바로 서쪽에도 퇴적암으로 된 높은 산지가 있어 산지에서 굴러 떨어진 암석이거나 기반암과 연결된 암석으로

18 • 고인돌유적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호 고인돌 옆이 파헤쳐져 들여다 본 결과 하부 구조가 있어 고인돌로 추정한다. 해발고도는 115m 정도이며 하천으로부터의 비고는 불과 3-4m밖에 되지 않는다.

1호 고인돌의 덮개돌은 500×340×150cm, 둘레 1430cm의 크기이다. 둥근 모습이며 긴 방향은 북서-동남 방향이다. 둘레는 둥글게 다듬은 형태이다. 덮개돌은 땅에 닿아 있는 형태인데 동남쪽 부분이 파헤쳐져 하부구조의 극히 일부만 볼 수 있다. 덮개돌의 밑에는 동남쪽에 1개의 꺾돌이 보인다.



개화리 고인돌(1997)

8. 남포면 고인돌



남포면의 고인돌 분포

1) 봉덕리 1지구 고인돌

남포면 봉덕리 봉산 마을과 역전 마을 사이에 있는 3기의 고인돌이다. 봉산 동쪽 기슭, 해발 50m 지점인데 이곳과 이어진 구릉을 따라 고인돌이 위치한다. 이곳 남쪽 350m, 700m 지점에도 고인돌군이 있으며 북쪽 600m 지점에도 고인돌 1기가 있었는데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없었다고 한다.

1호 고인돌은 봉덕리 1지구의 가장 북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사암으로 된 덮개돌은 160×137×50cm의 크기로 사각형 모습이다.

남쪽에 떨어져 나간 부분이 보인다. 긴 방향은 동서 방향이다. 꺾돌은 보이지 않는다.

2호 고인돌은 봉덕리 1지구의 중간에 있는 고인돌이다. 사암으로 된 덮개돌은 160×160×38cm의 크기로 4각형이며 둘레는 다듬은 듯 매끈하다. 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모습이고 표면은 평평하다. 꺾돌은 보이지 않는다.



봉덕리 1지구 고인돌(1997)

2) 봉덕리 2지구(화덕굴) 고인돌

남포면 봉덕리 화덕굴, 남포역에서 소송리 송골로 넘어가는 언덕 위에 있는 2기의 고인돌이다. 주민들은 형제바위라고 부른다.

1호 고인돌은 북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언덕의 정상에 있는데 봉덕리 쪽으로 치우쳐 있다. 덮개돌은 역암 기원의 편마암이다.

크기는 310×210×96cm, 둘레 855cm이다. 덮개돌의 바닥은 평평하며 매끈하고, 남쪽이 두꺼우며(96cm) 북쪽은 얇다(35cm). 표면은 다듬은 것처럼 매끈한 편이다.

2호 고인돌은 2기의 고인돌 중 남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고인돌 옆에 묘지가 있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280×170×60cm, 둘레 770cm이다. 땅에 붙어있어 꺾돌은 보이지 않는다. 긴 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이다. 1호 고인돌과는 약 3m 떨어져 있다.



봉덕리 2지구 고인돌(1997)

3) 소송리 1지구 고인돌

남포면 소송리 산 21-1번지에 있는 4기의 고인돌군이다. 남포면 봉덕리 장터말에서 소송리 송골로 넘어가는 언덕 위, 남포 제일장로교회 옆 소나무 숲속에 있다. 이곳은 해발 61.5m를 봉우리로 하는 낮은 구릉의 55m 지점이다. 서쪽과 동쪽에 골짜기가 있어 논으로 이용되는 낮은 구릉의 정상부로 주변이 넓게 트여 있다. 이곳은 봉덕리 2지구 고인돌군의 350m 남쪽이며 서쪽 700여m 지점에도 수십 기의 고인돌이 분포한다.

1호 고인돌은 가장 북쪽에 있는 중심 고인돌이다. 분암으로 된 덮개돌은 230×200×45cm, 둘레 730cm이며 부채 모양이다. 덮개돌의 동북쪽 밑에는 썸돌 1개가 있다. 매끈한 사암으로 크기는 110×75×11cm이다. 긴 방향은 북서-남동이다. 2호와는 860cm, 3호와는 810cm, 4호와는 900cm 떨어져 있다.



소송리 1지구 1호 고인돌(1997)

4) 소송리 2지구 고인돌

소송리 2지구 고인돌군은 소송리 234-3번지에 있다. 소송리 안소땡이 마을과 송골 사이에 있는 낮은 구릉의 남쪽 끝 부분에 위치하는 7기의 고인돌군이다. 주변과의 비고는 10여m에 불과하다. 해발고도는 20m이며 해안선과는 불과 300여m 떨어져 있다. 서쪽은 평평하고 안소땡이 마을이 들어서 있고, 동쪽은 골짜기로 넓은 경지(耕地)가 있으며 송골 마을이 들어서 있다.

고인돌 7기는 사방 12m 안에 밀집되어 있다. 고인돌 남쪽에 묘를 만들기 위하여 파 보았더니 점판암을 깬 묘가 발견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주변에는 청동기 시대 돌널 무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칠성바위라고 부르며 신성하게 여긴다.

3호 고인돌은 2지구 고인돌군의 중앙에 있는 중심적인 고인돌이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350×180×80cm, 둘레 930cm이고 비교적 다듬어진 모습이다. 긴 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이다. 북쪽에 2개의 썸돌과 1개의 막음돌로 이루어진 무덤방이 있다. 덮개돌이 남쪽으로 45°쯤 기울어 무덤방이 노출되어 있다. 동쪽의 썸돌은 편마암으로 길이 135cm, 폭 20cm, 보이는 부분의 높이 42cm이고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 서쪽의 썸돌도 편마암으로 길이 150cm, 폭 30cm, 높이 60cm로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 이 두 썸돌 북쪽에 막음돌이 있는데 역시 편마암으로 길이 93cm, 폭 38cm, 높이 43cm의 크기이다. 이 세 돌로 이루어진 무덤방은 길이 125cm 폭 55cm의 크기이다. 덮개돌이 무덤방을 바르게 덮지 못하고, 북쪽 부분만 무덤방에 걸쳐 있으며 썸돌이 수직으로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부터 바르게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긴 방향은 북동-남서이다.



소송리 2지구 3호 고인돌(1997)

5) 소송리 3지구 고인돌

남포면 소송리 산 58-1번지에 있었다. 해발 고도는 25m이며 주변과의 비고는 5~10m에 불과하다. 북쪽에는 해발 180.2m의 봉산이 있어 암석의 공급지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 고인돌에 의지하여 學生星州李公奎亨之墓가 있었다. 3개의 바위가 붙어 있는 모양 때문에 품자(品字) 바위라고도 불렀다.

이 고인돌은 서해안고속국도가 통과하여 2000년에 발굴되었다. 발굴보고서의 내용을 옮긴다.

1호 고인돌은 3기의 고인돌 가운데 가장 동쪽에 위치하며, 3호 고인돌에서 동쪽으로 80cm 떨어진 지점에 덮개돌이 안정된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덮개돌의 규모는 290×245×70cm 정도이다. 덮개돌의 장축은 대체로 남-북 방향이다. 매장 주체부는 덮개돌의 동편에 치우쳐서 노출되었는데, 장벽은 판상할석(板狀割石)을 넓혀쌓기로 축조하였고, 단벽은 1매의 판석을 세워쌓기 한 석관묘이다. 매장 주체부는 너비 45cm 정도의 규모로 축조되었으며, 장축은 북북동-남남서 방향이다. 매장 주체부의 남단 벽쪽은 후대 백제 석곽묘(石槨墓)가 만들어지면서 파괴되었다. 매장 주체부 내에서 무문토기(無文土器) 저부편(底部片)이 출토되었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2호 고인돌은 3기의 고인돌 가운데 남쪽에 자리하며, 북동쪽으로 140cm 떨어진 지점에 1호 고인돌의 덮개돌이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의 규모는 160×170cm 정도이며, 덮개돌의 동쪽 가장자리 아래는 하부구조의 벽석(壁石)에 의해 받쳐져 있고, 덮개돌의 서쪽 가장자리 아래로는 현 지표면에 닿아 비스듬하게 놓여 있다.

고인돌의 매장 주체부는 석관묘(石棺墓)의 형태를 보이나 동쪽 장벽만이 잔존하고 있다. 잔존한 동장벽의 결구 양상은 3매의 판상할석(板狀割石)을 넓혀쌓기하여 축조하였고, 동장벽 벽석의 뒷면에는 30cm 내외의 잡석을 채워 덮개돌의 하중을 지탱하는 보강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부구조의 북단 벽쪽에서 백제토기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된 점과 하부구조 서장벽이 유실된 점 등을 볼 때, 백제 시대에 고인돌의 하부 구조를 재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매장 주체부 서장벽은 이 시대에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3호 고인돌은 3기의 고인돌 가운데 서쪽에 위치하며, 남동쪽으로 80cm 거리에 2호 고인돌의 덮개돌이 놓여 있다. 덮개돌은 장축이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규모는 274×165cm 정도이다. 고인돌의 매장 주체부는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는 않다. 출토 유물은 무문토기(無文土器) 저부편(底部片) 1점이 덮개돌을 제거하고 매장 주체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습되었다



소송리 3지구고인돌(발굴 전, 1997)



소송리 3지구 고인돌 발굴(1998)

6) 소송리 4지구 고인돌

소송리 안소뱅이 북쪽에서 사청골로 넘어가는 구릉 위에 1기의 고인돌이 있다.

이 구릉은 해발 40m 높이며, 마을에서는 이 고인돌은 갱구할매 바위라고 부른다.

사암으로 된 덮개돌은 300×175×30cm, 둘레 735cm의 크기였다. 킴돌은 보이지 않았다. 주변 산지를 개발하면서 유실되었다.



소송리 4지구 고인돌(1997)

7) 소송리 5지구(바위백이) 고인돌

남포면 소송리 337(전), 338(전)에 위치한 8기의 고인돌이다. 이곳은 안소뱅이 마을 북쪽, 바위백이라고 불리는 지역이다. 고인돌은 가로 30m, 세로 10여 m 구역에 8기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대개 동서로 배열되어 있다. 이 고인돌군의 서쪽 끝에는 길이 7.5m, 폭 2m, 높이 1.2m의 돌무더기가 있는데, 밭에서 주워낸 돌을 쌓아놓은 곳으로 이 속에도 몇 개의 고인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호 고인돌은 소송리 5지구에서 가장 크고 높은 중심 고인돌이다. 사암으로 된 덮개돌은 470×260×높이 280cm의 크기로 바닥은 평평하고 윗면은 봉우리를 이루었다. 긴 방향은 동서이다. 덮개돌 밑에는 4개의 킴돌이 보인다.



소송리 5지구 2호 고인돌(1997)

보이는 켜들은 육면체로 가로 118cm, 세로 67cm, 높이 58cm의 크기이며 사암이다. 주변에 자갈을 쌓아 잘 보이지 않는데 동북쪽의 켜들은 육면체로 보이고 남쪽의 두 켜들은 둥근 돌로 보인다.

8호 고인들은 소송리 5지구 서남쪽에 있는 둥근 고인돌이다. 다른 고인돌보다 50cm쯤 낮은 곳에 위치한다. 수평 층리를 가진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250×200×60cm, 둘레 780cm의 크기이다. 둘레는 다듬은 것처럼 둥글고 켜들은 보이지 않는다.

긴 방향은 남북이다. 최근 훼손되어 발독으로 옮겨졌다.

8) 소송리 6지구 고인돌

남포면 소송리 안소뱅이와 밧소뱅이 사이에 있는 구릉에 6기의 고인돌이 있다. 해발고도는 30m이며 주변으로부터의 높이는 5m에 불과하다. 모두 능선의 가장자리에 남북으로 들어서 있다.



소송리 6지구 1호 고인돌(2007)

1호 고인돌은 소송리 6지구 고인돌군 중 가장 북쪽에 있는 대표적인 고인돌이다. 사암 기원의 변성암으로 된 덮개돌은 216×160×120

cm, 둘레 615cm의 크기이다. 바닥은 평평하고 둘레는 비교적 다듬어진 형태이며 비교적 높다. 긴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이며 땅에 닿아 있으며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다.

덮개돌 밑에는 2개의 켜들이 남북방향으로 있으며 1개의 막음돌이 북쪽에 있다. 서쪽에 있는 켜들은 역이 섞여 있는 변성암으로 길이 97cm, 폭 25cm, 지표상의 높이 20cm이며, 동쪽 켜들은 역이 섞여 있는 편마암으로 길이 100cm, 폭 20cm, 지표상의 높이 46cm이다. 막음돌은 동서로 놓여 있는데 길이 90cm, 폭 15cm, 높이 39cm이다. 무덤방은 북동-남서 방향인데 폭은 58cm이고 길이는 100cm 정도이다. 남쪽 막음돌은 없다. 무덤방에는 작은 자갈이 들어있다. 간이 상수도 취수장과의 거리는 480cm이다.

9) 소송리 7지구 고인돌

남포면 소송리 397-2번지(전)에 있는 2기의 고인돌이다. 봉산에서 뺀어 내린 낮은 구릉으로 밧소뱅이와 안소뱅이 사이에 있다. 해발고도는 20여 m이다. 주변과의 비고는 10여 m이며 과거 해안선과의 거리는 불과 250m이다. 이곳은 큰 밧으로 밧의 중앙에 고인돌이

24 • 고인돌유적

있고, 주변에는 밭에서 나온 돌을 쌓아놓아 정확한 규모는 알기 어렵다. 돌무더기의 크기는 360×250×40cm, 둘레 900cm에 이르는데 북쪽의 노출된 돌과 남쪽 부분에 노출된 돌이 서로 달라 고인돌이 2기인 것처럼 보인다.



소송리 7지구 고인돌(1997)

10) 제석리 고인돌

남포면 제석리 산 1번지에 위치한 고인돌이다. 이곳은 삼현리 뒷굴과 제석리 지석굴 사이의 낮은 구릉으로 해발 고도는 20여 m이다.

거친 화강암으로 된 덮개돌의 크기는 200×145×70cm, 둘레 580cm로 표면은 평평하며 둘레는 다듬어졌다. 표면에는 직경 10여cm인 30여 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특히 남쪽에는 직경 37cm의 원이 그려져 있고 원의 중심에는 직경 10cm, 깊이 6cm의 구멍이 뚫려 있다. 큰 원의 골은 폭 1cm, 깊이 1cm이다. 긴 방향은 동서이며 꺾들은 보이지 않는다.



제석리 고인돌(2008)



제석리 고인돌의 구멍(2008)

11) 삼현리 고인돌

남포면 삼현리 11번지(묘)에 위치한 1기의 고인돌이다. 구릉의 해발고도는 23m이나 고인돌이 있는 곳은 15m 정도이다.

사암으로 된 덮개돌은 175×135×50cm, 둘레 495cm의 크기이며 표면은 평평하고 꺾들은 보이지 않는다.



삼현리 고인돌(1997)

12) 달산리 1지구 고인돌

남포면 달산리 219번지 큰댕월 입구 바위백이에 있는 8기의 고인돌군이다. 이곳은 해안의 넓은 평원에 돌출한 구릉으로 북쪽 골짜기는 작은댕월 마을이고, 남쪽 골짜기는 큰댕월 마을이다. 구릉의 끝에 분포하는데 남북으로 23m, 동서로 8m 구역 안에 밀집되어 있다.

1호 고인돌은 동북쪽에 있는 중심 고인돌이다. 흰무늬가 있는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345×230×90cm, 둘레 1050cm의 크기이다. 표면은 비교적 평평하고 둘레는 다듬은 모습이며, 동쪽 부분은 떨어져나간 것처럼 보인다. 동쪽에 편마암으로 된 꺾돌 1개가 보인다.

긴 방향은 남북이다.

8호 고인돌은 가장 남쪽에 있는, 중심되는 고인돌이다. 사암으로 된 덮개돌은 240×190×111cm, 둘레 780cm의 크기이다. 덮개돌의 북쪽은 지표에서 40cm쯤 떨어진 상태이며 남쪽과 동쪽은 땅에 닿아 있다. 꺾돌은 2개가 보이는데 서쪽의 것은 사암으로 길이 115cm, 폭 55cm, 보이는 부분의 높이는 35cm이다. 동쪽 꺾돌은 편마암으로 길이 65cm, 폭 20cm, 높이 10cm인데 돌이 거친 편이며 이 꺾돌이 덮개돌의 중앙에 있어 동쪽 부분이 땅에 닿아있다. 꺾돌 사이의 간격은 80cm이다. 긴 방향은 북동 남서 방향이다.



달산리 1지구 고인돌

13) 달산리 2지구 고인돌

남포면 달산리 남포중학교 남서쪽 150여m 지점에 있던 5기의 고인돌이다. 이곳은 해발 27m 정도이고 모두 논으로 이용되었다.

고인돌은 동서 방향으로 한 줄로, 거의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었는데 고인돌에 의지하여 논둑을 쌓아 대부분의 고인돌이 한 면만 나와 있었다. 이 고인돌은 주민들에 의해 갱구 할매 바위라고 불렸다. 주민들은 이곳에서부터 달산, 봉촌, 월전리까지 이어지는 갱구할매 바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고인돌이다. 서해안고속도로 공사 구간이라 발굴 조사되었다.

유물이 출토된 유구는 5호 고인돌로 여기에서는 무문토기 저부편 1점이 출토되었고, 조사구역 제토 과정에서 수습된 지표 수습 유물로는 석부(石斧) 1점, 석착(石鑿), 석족

(石鏃) 1점이 있다.

5호 고인돌은 발굴조사 이전에 덮개돌과 하부구조에 사용된 석재가 덮개돌 밑에 꺾여 있는 채로 노출된 상태였다. 덮개돌의 평면 형태는 방형이며, 단면 형태는 6각형에 가깝다. 덮개돌의 장축방향은 남-북이며, 규모는 길이 388cm, 폭 314cm, 두께 160cm 정도이다. 덮개돌을 제거하고 정리한 결과 석재 일부가 남아 있었다. 그 양상을 살펴 보면 조사지역의 기반층인 명갈색점질층 위에 장축방향을 북동-남서로 한 석관 형태의 하부구조가 확인되었다. 하부구조의 규모는 길이 142cm, 폭 76cm, 깊이 120cm이다.

석관의 외부에는 소형 할석과 충진토를 통해 덮개돌의 하중을 지탱한 것으로 보이며, 하부에 이용된 석관의 벽석이 고인돌의 덮개돌을 받치고 있어, 꺾돌의 기능까지 한 것으로 추정되나, 매장부의 잔존양상이 양호하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다. 매장부인 석관의 평면형태는 원형에서 변형되어 정형성은 보이지 않는다. 출토 유물은 적석시설에서 무문토기 저부 1점이 수습되었다.



달산리 2지구 고인돌(1997)



달산리 2지구 5호 고인돌(1997)

14) 신흥리 1지구 고인돌

남포면 달산리와 신흥리의 경계 지역이다.

묘 남북으로 2기의 고인돌이 있다.

1호 고인돌은 북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사암으로 된 덮개돌의 크기는 235×120×70cm, 둘레 720cm이다. 둘레는 다듬어진 모습이며 윗면에는 골이 있다. 꺾돌은 보이지 않는다. 긴 방향은 북동 남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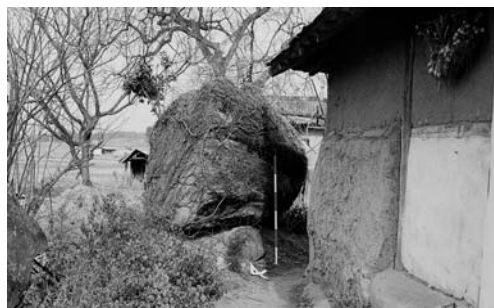
신흥리 1지구 고인돌

2호 고인돌은 남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흰색이 많은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타원형으로 190×136×40cm, 둘레 530cm이다. 1호와 690cm 떨어져 있고 꺾돌은 없다.

15) 신흥리 2지구 고인돌

남포면 신흥리 182번지에 있는 6기의 고인돌이다. 이곳은 낮은 구릉과 구릉 사이의 평지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마을의 가운데에 고인돌이 위치한다. 이곳의 해발고도는 약 20m이다.

2호 고인돌은 신흥리 2지구의 중심 고인돌이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300×230×170cm(높이), 둘레 790cm로 상당히 높은 고인돌이다. 덮개돌의 남쪽 부분에 매끈한 분암으로 된 높이 40cm, 폭 50cm, 길이는 알 수 없는 쥘돌 1개가 보인다. 쥘돌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아 4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덮개돌 북쪽에는



신흥리 2지구 2호 고인돌(1997)

140×120×35cm 크기의 돌이 붙여져 있는데 덮개돌과 같은 돌이다. 옛날 덮개돌에 붙어 있었는데 떼어내어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나 다시 옮겨 놓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정월 보름에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16) 신흥리 3지구 고인돌

남포면 신흥리 219번지(묘), 봉촌 마을회관 앞에 있는 10기의 고인돌군이다. 이곳은 주변보다 약 10여 m 높은 언덕으로 토양은 적색토이다. 이곳과 수m 떨어진 곳에서 도로공사 중 돌널무덤이 발견되었다고 하며 50여m 떨어진 현 마을회관 앞에도 고인돌 2기가 있었는데 길을 넓힐 때 없앴다고 한다. 이곳은 과거부터 소위 덩불로 이용되었던 듯 오래된 패각, 돌, 그릇조각 등이 쌓여 있고 근래에 버린 쓰레기도 상당히 있다.

1호 고인돌은 3지구의 북쪽 끝에 있는 고인돌이다. 흰색 무늬가 많은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315×210×110cm, 둘레 950cm의 크기로 이곳의 중심 고인돌이다. 쥘돌은 동쪽 부분에 1개 보이는데 보이는 부분은 길이 60cm, 높이 60cm이며 폭을 알 수 없다.

8호 고인돌은 가장 서쪽에 있는 제일 큰 고인돌이다. 흰무늬가 많은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의 크기는 455×365×100cm, 둘레 1220cm의 크기이다. 긴 방향은 북서-남동이며 바닥과 표면이 비교적 평평하고 둘레도 다듬은 모습이다. 서남쪽 덮개돌 밑은 침식되어 공간이 드러났는데 높이 50cm, 길이 100cm 정도이다 이곳으로 들여다보면 덮개돌 밑에 길이 150×높이 30cm의 긴 돌이 꺾어 있다. 남쪽 끝에도 30×25×15cm(높이)의 석명맥암으로 된 돌이 꺾어 있으며 북동쪽에도 90×40×높이 24cm의 돌이 꺾어 있다.

이 돌은 편마암이다. 긴 방향은 남북이다.



신흥리 3지구 고인돌(1997)



신흥리 3지구 1호 고인돌

17) 신흥리 4지구 고인돌

신흥리 남쪽 새말에 있는 고인돌이다 원래 이곳에 3기가 있었다고 하나 경지정리로 모두 없어지고 1기만 남았다. 이곳의 해발고도는 25m 정도이다.

흰무늬가 많은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335×200×70cm, 둘레 890cm의 크기이며, 북쪽에 1개의 쾨돌이 보인다. 보이는 부분의 길이 95cm, 폭 65cm, 높이 30cm로 일부만 보인다.



신흥리 4지구 고인돌(1997)

18) 신흥리 5지구 고인돌

남포면 신흥리 엄나무굴과 새말 사이의 고갯마루에 있는 1기의 고인돌이다. 덮개돌은 편마암으로 긴 방향은 동서이며 층리 방향도 동서이다.

크기는 210×170×100cm, 둘레 555cm이다. 덮개돌의 남서쪽에는 길이 110cm 폭 30cm, 보이는 높이 40cm인 쾨돌이 보인다.



신흥리 5지구 고인돌(2001)

19) 양기리 1지구 고인돌

남포면 양기리 월전초등학교와 곡촌 사이에 있는 5기의 고인돌이다. 해발고도는 25m 정도이다. 옛 해안선과의 거리는 600m에 불과하며 주변 300m 이내에 양기리 2지구, 양기리 3지구 고인돌군이 있다.

1호 고인돌은 1지구의 북쪽 대나무밭 속에 위치한, 1지구를 대표하는 고인돌이다. 덮개돌은 흰무늬가 많은 편마암으로 길쭉하면서 둥근 타원형이며 크기는 290×180×75cm, 둘레 740cm이다. 바닥, 표면, 둘레 모두 잘 다듬어진 모습이다. 긴 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이다. 탁자식 고인돌인 1호의 덮개돌 밑에는 편마암으로 된 킴돌이 동쪽과 서쪽에 놓여 있는데 남쪽에는 막음돌이 남아 있다. 킴돌은 동쪽의 것이 길이 120cm, 폭 15cm, 높이 30cm이고 서쪽의 것은 길이 125cm, 폭 40cm, 높이 20cm이다. 막음돌은 분암으로 길이 33cm, 폭 12cm, 높이 10cm이다. 4호와 2호와는 440cm, 2호와는 250cm 떨어져 있다.

4호 고인돌은 2호와 5호 고인돌의 중간에 위치한다. 변성된 사암으로 된 덮개돌은 190×185cm이며 보이는 부분의 높이는 25cm이다. 둘레는 660cm이고 표면은 평평하다. 덮개돌의 가장자리에는 지름 4-8cm, 최대 깊이 5cm의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 이 구멍들은 인공적인 것이 아닌, 암석의 특성 때문에 풍화되어 생긴 풍화혈로 생각된다.



양기리 1지구 1호 고인돌(1997)



양기리 1지구 4호 고인돌(1997)

20) 양기리 2지구(곡촌) 고인돌

남포면 양기리 70, 74-2, 75, 78번지 일대에 분포하던 고인돌이다. 이곳은 양기리 곡촌 마을 안으로 집안이나 담벽, 마당가 등에 분포하였었다. 74-2번지에 있던 탁자식 고인돌을 새마을 운동 당시 길을 넓히느라고 훼손하였다고 하는 등 여러 훼손 사실들이 전하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이라 가옥을 모두 철거하였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13기를 발굴 조사하였다.

30 • 고인돌유적

1호 고인돌의 덮개돌은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었다. 덮개돌의 평면 형태는 부정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규모는 길이 184cm, 폭 180cm, 두께 약 90cm이다. 덮개돌을 제거하고 조사한 결과 하부구조는 잔존하지 않았으며, 출토유물도 없었다.

4호 고인돌의 덮개돌은 3호 고인돌 덮개돌에서 북쪽으로 15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조사 이전 가옥의 담장으로 이용되어 노출된 상태였다. 덮개돌의 평면 상태는 오각형이며, 장축은 거의 북동-남서 방향이다. 덮개돌의 규모는 길이 250cm, 폭 248cm, 두께 약 50cm이다.

덮개돌을 제거하고 정리하자 덮개돌의 북서쪽 아래에서 소형 할석들이 확인되어, 하부구조의 존재 가능성을 높게 하였으나, 정리 작업 결과 노출된 석재 이외에 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없었다.



양기리 2지구 1호 고인돌(1997)



양기리 2지구 4호 고인돌(1997)

21) 양기리 3지구 고인돌

남포면 양기리 곡촌 마을 북쪽 구릉에 있는 11기의 고인돌이다. 1지구와는 200여 m, 2지구와는 100여 m, 옛 해안선과는 800여 m 떨어져 있다.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해발 37m쯤으로 마을과는 10여m 비고를 가지는 곳으로 아주 평탄한 산록의 사면이다.

이곳에 있는 雲菴慶州崔公興龜之墓를 중심으로 11기의 고인돌이 흩어져 있다.

3호 고인돌은 3지구의 중앙에 있는 중심 고인돌이다. 흰무늬가 많은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280×175×40cm, 둘레 825cm이다. 긴 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이며 동쪽이 두껍고 서쪽이 얇아 땅에 닿아 있다.

덮개돌 밑에는 동서 방향의 켜돌 2개가



양기리 3지구 3호 고인돌(1997)

놓여 있다. 북쪽 꺾돌은 흰무늬 편마암으로 수직 방향의 층리를 가지고 있으며 폭 20cm, 보이는 부분의 높이 30cm, 보이는 부분의 길이는 113cm이다. 남쪽 꺾돌도 흰무늬 편마암인데 넘어져 있다. 보이는 부분의 길이는 120cm, 폭 45cm, 높이 10cm이다.

4호와 5호와는 200cm, 5호와는 100cm 떨어져 있다.

22) 남포면 양기리 4지구 고인돌

남포면 양기리 465-1(답, 1호), 465-3(도, 2호)에 있는 고인돌이다. 남포면 양기리 제민저수지 수로 아래에 있다. 1기는 제방 바로 아래에 있고 1기는 수로 서쪽으로 통하는 도로 독에 있다.

1호 고인돌은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의 크기가 280×280×210cm, 둘레 800cm로 삼각뿔의 모습이며 맨 위는 뾰족하고 바닥은 평평하다. 남쪽 면의 가운데는 약간 돌출한 형태이다. 긴 방향은 동서 방향이고 모서리는 북, 동남 방향이다. 덮개돌 밑에는 2개의 꺾돌이 있다.



양기리 4지구 1호 고인돌(1997)

2호 고인돌은 남포면 양기리 465-3(도)와 465-2(구) 사이에 1호와 22m 떨어져 위치하는 고인돌이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의 크기는 325×220×116cm, 둘레 930cm의 크기로 땅에 묻혀 있어 하부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23) 양기리 5지구(신머리) 고인돌

양기리 신머리 마을 뒤에 있는 6기의 고인돌이다. 과거의 해안선과는 불과 40여m 떨어져 있다. 이곳은 해안에 동서 방향으로 난 구릉으로, 최고 높이가 해발 26.5m에 불과하며 토양은 적색 점토로 기반암의 노출은 전혀 없는 곳이다.

1호 고인돌은 양기리 5지구(신머리) 고인돌군의 동북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민묘의 동남쪽 부분에 있다. 흰무늬가 있는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197×98×45cm, 둘레 520cm의 크기이다. 긴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이고, 땅에



양기리 5지구 고인돌(1997)

박혀 있어 꺾돌은 보이지 않는다. 4호와 1040cm, 2호와는 240cm 떨어져 있다.

2호 고인돌은 양기리 5지구 동쪽 부분의 가운데에 있는 중심 고인돌이다. 덮개돌은 흰무늬가 많은 편마암으로 220×160×82cm, 둘레 620cm이다. 바닥에는 동서 방향으로 2개의 꺾돌이 보인다.

24) 양기리 6지구(턱굴) 고인돌

남포면 양기리 아래턱굴에 있는 3기의 고인돌이다.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아래턱굴에서 서남쪽으로 난 골짜기 옆의 산기슭이다. 해발고도는 약 50m 정도로 고인돌이 있는 곳은 주변 밭보다 약간 높다.

1호 양기리 아래턱굴에 있는 고인돌군의 가장 남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덮개돌은 흰무늬가 많은 편마암으로 크기는 230×165×70cm, 둘레 680cm이다. 지면에 붙어 있어 꺾돌은 보이지 않는다.

2호 고인돌은 양기리 아래턱굴에 있는 3기의 고인돌군 중 가운데에 있는 고인돌이다. 개울의 침식, 특히 2000년의 수해로 침식되어 하부구조가 드러나 있다. 덮개돌은 흰무늬가 많은 편마암으로 크기는 150×185×50cm, 둘레 470cm이다. 동쪽에 꺾돌이 있어 덮개돌의 동쪽이 들려있고 서쪽은 땅에 닿아 있다. 동쪽 부분이 사태로 노출되어 꺾돌이 확실히 보인다. 1호와 310cm, 3호와 320cm 떨어져 있다.



양기리 6지구 고인돌(2001)

25) 월전리 고인돌

남포면 월전리 203-4에 1기, 203-11에 6기의 고인돌이 있다. 이곳은 남포면 대자울마을 뒤로 경주 김 씨 집단 묘가 있는 곳이며, 옛 해안선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해발 20여m의 구릉이다.

4호 고인돌은 월전리 203-11(임) 번지에 있는 고인돌이다. 3호 고인돌 남서쪽 470cm 거리에 있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330×190×80cm, 둘레 880cm로 월전리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다. 긴 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이며 상부가 평평하고 둘레도 다듬어진 모습이다. 남쪽으로는 약간 기울어져 있고 남북 방향의 층리를 가지고 있다. 주변의 흙을 깎아내어

묘 위에 얹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덮개돌의 북서쪽에는 길이 125cm, 폭 65cm, 보이는 높이가 10cm의 빙돌 1개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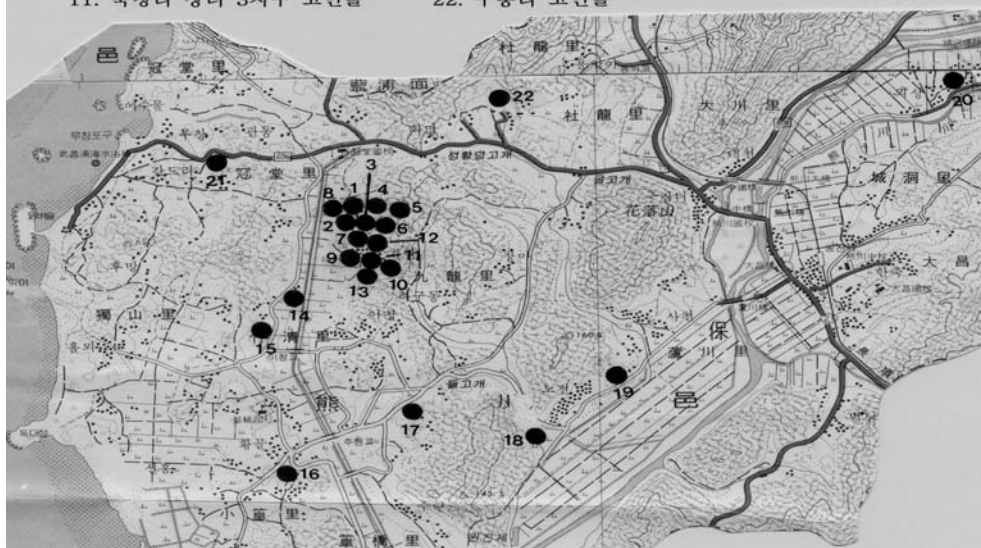
월전리 고인돌(1997)



월전리 4호 고인돌(1997)

9. 웅천읍 고인돌

- | | |
|---------------------|--------------------|
| 1. 죽청리 잠나무굴 1지구 고인돌 | 12. 죽청리 장터 4지구 고인돌 |
| 2. 죽청리 잠나무굴 2지구 고인돌 | 13. 죽청리 장터 5지구 고인돌 |
| 3. 죽청리 잠나무굴 3지구 고인돌 | 14. 죽청리 덕산봉 고인돌 |
| 4. 죽청리 잠나무굴 4지구 고인돌 | 15. 죽청리 갓굴 고인돌 |
| 5. 죽청리 잠나무굴 5지구 고인돌 | 16. 소황리 고인돌 |
| 6. 죽청리 잠나무굴 6지구 고인돌 | 17. 황교리 고인돌 |
| 7. 죽청리 잠나무굴 7지구 고인돌 | 18. 노천리 1지구 고인돌 |
| 8. 죽청리 잠나무굴 8지구 고인돌 | 19. 노천리 2지구 고인돌 |
| 9. 죽청리 장터 1지구 고인돌 | 20. 성동리 고인돌 |
| 10. 죽청리 장터 2지구 고인돌 | 21. 관당리 고인돌 |
| 11. 죽청리 장터 3지구 고인돌 | 22. 구룡리 고인돌 |



웅천읍의 고인돌 분포

1) 죽청리 잠나무굴 1지구 고인돌

웅천읍 죽청리 잠나무굴 마을 입구에 있는 고인돌이다. 마을의 동쪽 산지에는 고인돌로 사용될 수 있는 많은 편마암 노두(露頭)가 있으며, 마을 주변에는 많은 고인돌이 분포한다.

1호 고인돌은 죽청리 잠나무굴 1지구의 남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분암으로 된 덮개돌은 220×170×60cm, 둘레 610cm의 크기이며 표면과 바닥, 가장자리가 비교적 매끈하다. 분암의 풍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모습은 긴 타원형이고, 긴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이다. 동쪽에 1개의 꺾돌이 있어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동쪽에 있는 꺾돌은 90×55×30cm이며 석질(石質)은 덮개돌과 같은 분암이다. 2호와는 5m 떨어져 있다.



죽청리 잠나무굴 1-1호 고인돌(1997)

2) 죽청리 잠나무굴 2지구 고인돌

웅천읍 죽청리 49, 49-1번지에 걸쳐 있는 7기의 고인돌이다. 6기는 49-1번지에 있고, 1기는 49번지에 있다. 사방 20여m 안에 7기의 고인돌이 분포하는데, 남북으로 길게 불규칙적으로 놓여 있다.

4호 고인돌은 중앙에 있는 고인돌이다. 흰무늬가 많은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300×220×240cm, 둘레 810cm이며 긴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이다. 덮개돌의 서북쪽에는 2개의 돌이 놓여 있고 밑에도 1개의 돌이 놓여 있다. 가장 서북쪽에 있는 돌은 길이 125cm, 폭 38cm, 높이 20cm이며 가운데 있는 돌은 길이 230cm, 높이 78cm, 폭 48cm이다. 덮개돌 밑에 있는 돌은 보이는 부분의 길이 126cm, 높이 60cm, 폭 60cm이다.

이 고인돌의 서남쪽이 논으로 개간되어 깎여 파괴가 심한 편이다. 2호와는 440cm, 3호와는 250cm, 5호와는 550cm, 6호와는 310cm 떨어져 있다.

6호 고인돌은 북동쪽에 있는 큰 고인돌이다. 흰무늬가 많은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의 크기는 320×310×230cm, 둘레 970cm이다. 상당히 높으면서도 상부는 평평하고 둘레는 다듬은 모습이다. 긴 방향은 남북이다. 덮개돌의 남쪽 밑에는 길이 80cm, 폭 35cm, 높이 30cm의 꺾돌 1개가 동서 방향으로 있다. 주변이 돌우어진 것으로 보인다.



죽청리 잠나무굴 2지구 고인돌(1997)



죽청리 잠나무굴 2지구 4호 고인돌

3) 죽청리 잠나무굴 3지구 고인돌

용천읍 죽청리 잠나무굴에서 승저굴로 넘어가는 산 모퉁이에 있는 고인돌이다. 이곳은 낮은 구릉의 말단부이다. 해발고도는 40m이다. 이 고인돌군의 가운데에는 慶州金公諱宗元の 묘가 있다. 묘역 내에 6기, 묘역 밖에 2기의 고인돌이 분포한다. 묘역 주변에 있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다.

1호 고인돌은 고인돌군의 북쪽에 있는 중심 고인돌이다. 흰무늬가 많은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370×240×140cm, 둘레 1,010cm의 크기로 윗면은 평평하고 둘레도 다듬어졌다. 남쪽 부분은 수평 방향으로 깨져 있다. 긴 방향은 북서-남동이고 북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덮개돌 밑에는 4개의 돌이 보이는데 서북쪽의 것은 덮개돌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남쪽 가운데에 있는 것은 림돌로 보인다. 림돌의 크기는 길이 100cm, 폭 30cm, 높이 20cm로 편마암이다. 남동쪽 끝에 있는 림돌은 40×20×20cm이다. 2호와의 거리는 670cm이다.



죽청리 잠나무굴 3지구 고인돌(1997)



죽청리 잠나무굴 3지구 1호 고인돌(1997)

4) 죽청리 잠나무굴 4지구 고인돌

웅천읍 죽청리 잠나무굴 1지구 고인돌 동쪽 150m 지점에 있던 2기의 고인돌이다. 잠나무굴에서 육골로 통하는 길의 북쪽 산기슭에 있었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로 2기 모두 대전 현충원으로 이전 복원하였다.

1호 고인돌은 서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흰무늬가 많은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의 크기는 258×116×60cm, 둘레 650cm의 크기로 표면은 절리면으로, 평평하고 둘레도 다듬어진 모습이다. 동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덮개돌의 북서쪽에는 2개의 돌이 있는데 꺾돌로 보인다. 북쪽의 것은 덮개돌과 약 1m 떨어져 있는데 길이 124cm, 폭 25cm, 보이는 높이 40cm로 잘 다듬어져 있으며 세로로 세워져 있다. 덮개돌이 남쪽으로 넘어지면서 이탈된 것으로 보인다.



죽청리 잠나무굴 4지구 고인돌

5) 죽청리 잠나무굴 5지구 고인돌

웅천읍 죽청리 44번지 울타리에 걸쳐 있는 1기의 고인돌이다. 흰무늬가 많은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220×280×250cm, 둘레 940cm로 삼각형 모습으로 다른 고인돌에 비하여 높다. 덮개돌 아래에는 3개의 꺾돌이 보인다.

남쪽에 2개, 동쪽에 1개가 보이는데 모두 흰무늬가 많은 편마암이다.



죽청리 잠나무굴 5지구 고인돌

6) 죽청리 잠나무굴 6지구 고인돌

웅천읍 죽청리 잠나무굴 44번지 대밭 속에 있는 고인돌이다. 4기의 고인돌이 있어 토지의 경계를 이루고 대밭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요즈음 대나무를 베어내 드러나게 되었다.

7) 죽청리 잠나무굴 7지구 고인돌

웅천읍 죽청리 잠나무굴 3지구 남쪽 23.5m 떨어진 곳에 있는 고인돌군으로 3기의 고인돌이 있다. 이곳은 해발 40여m 되는 곳으로 구릉의 말단부이다.

3호 고인돌은 가장 북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2호와 는 불과 25cm 떨어져 있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의 크기는 230×180×25cm, 둘레 660cm이다. 다른 고인돌에 비하여 덮개돌이 얇다.

덮개돌의 남쪽에는 2개의 꺾돌이 보인다. 꺾돌 사이의 거리는 68cm이다.



죽청리 잠나무굴 7지구 고인돌(1997)

8) 죽청리 잠나무굴 8지구 고인돌

웅천읍 죽청리 잠나무굴 입구의 서쪽에 있는 3기의 고인돌이다. 해발고도는 33m 정도이다.

1호 고인돌은 북쪽에 있는 대형 고인돌이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470×180×170cm, 둘레 1130cm의 크기이며 긴 방향은 북서-남동이다. 덮개돌의 상부는 비교적 평평하며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다. 둘레는 다듬어진 모습이다. 덮개돌의 남쪽에는 1개의 편마암 꺾돌이 있고, 그 남쪽에도 3개의 편마암 돌이 세로로 문혀



죽청리 잠나무굴 8지구 고인돌(1997)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어 무덤방인 것으로 보인다. 무덤방의 남북 폭은 190cm로 덮개돌과 같이 동서 방향이다. 2호와의 간격은 140cm이다. 덮개돌과 무덤방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 만들 때부터 실패했거나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9) 죽청리 장터 1지구 고인돌

웅천읍 죽청리 장터 마을 363-3(묘)에 있는 15기의 고인돌이다. 이곳은 장터 마을의 중앙으로 많은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이곳은 산기슭에 있는 평지로 해발고도는 30여m이다. 2000년 6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72호로 지정되었다.

1호 고인돌은 가장 서쪽에 위치한 중심 고인돌이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400×230×220cm, 둘레 1110cm의 크기로 북쪽으로 좁고, 남쪽으로 넓은 모양이다. 긴 방향은 남북이다. 덮개돌 밑에는 2개의 켜돌과 2개의 막음돌이 높게 고여 있다. 보령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인돌이다. 동쪽의 켜돌은 편마암으로 180×70×40cm의 크기이며 밑 부분이 땅에 묻혀있어 안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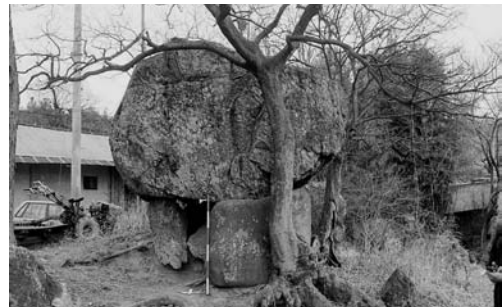
서쪽의 것은 분암으로 크기는 160×90×40cm이며 표면이 매끈하다. 1개의 구멍이 있는데 암석이 풍화되면서 생긴 풍화혈이다. 이 켜돌의 표면이 매끈하고 모서리가 둥그런 것 때문에 냇가에서 운반한 돌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주변 산지에서 편마암 사이에 분포하는 둥그런 분암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켜돌은 냇가에서 마식된 것이 아니고 암석의 풍화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 켜돌 주변은 침식되어 켜돌의 밑바닥까지 지표에 드러나 있다.

남쪽과 북쪽에 있는 막음돌은 모두 편마암이다. 남쪽 것은 100×80×40cm로 무덤방의 안쪽으로 기울어졌고, 덮개돌에 닿지 않았으며 북쪽의 것은 85×85×30cm, 45×30×20cm로 두 개인데 큰 것은 덮개돌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어 켜돌의 역할을 한다.

작은 것은 덮개돌과 분리되어 있으며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죽청리 장터 1지구 고인돌(1997)



죽청리 장터 1-1호 고인돌(1997)

10) 죽청리 장터 2지구 고인돌

웅천읍 죽청리 장터 마을에서 구룡리 마차울로 넘어가는 길 남쪽의 논둑에 있는 2기의 고인돌이다. 주변을 모두 논으로 개간하면서 고인돌이 있는 곳을 논둑으로 처리하였다.

이곳에는 몇 개의 고인돌이 더 있었는데 농사에 방해되어 없애버렸다고 한다.



죽청리 장터 2지구 고인돌(1997)

1호 고인돌은 동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의 크기는 315×210×120cm, 드러난 부분의 둘레는 580cm이다. 북쪽 부분은 논둑에 덮여있으며 긴 방향은 북서-남동이다. 윗면은 평평하고 둘레도 다듬어진 모습이다.

덮개돌의 남쪽 부분에는 2개의 꺾임돌이 보인다. 서쪽 것은 분암으로 높이 25cm, 폭 30cm이며 동쪽 것은 높이 30cm, 폭 85cm이며 논바닥에서 덮개돌까지의 높이는 45cm이다. 이 고인돌 동쪽 60cm 떨어진 곳에는 90×60cm되는 편마암 암석이 땅에 묻혀있다.

2호와의 거리는 380cm이다.

11) 죽청리 장터 3지구 고인돌

웅천읍 죽청리 장터 마을 김동기 씨 댁 아래채 담벽에 있는 고인돌이다. 덮개돌로 보이는 부분은 100×80cm의 크기이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7~8m 떨어진 곳에도 1기의 고인돌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한다.



죽청리 장터 3지구 고인돌(1997)

12) 죽청리 장터 4지구 고인돌

웅천읍 죽청리 옛 마을회관 북동쪽 언덕 위에 있다. 원래 이곳에는 민묘(民墓)가 있었고 묘 주변에 3~4기의 고인돌이 있었는데, 1970년대에 밭으로 개간하면서 중장비로 밀어내어 남쪽 소나무 숲속에 아무렇게나 쌓아놓았다. 이곳의 해발고도는 33m 정도이다.



죽청리 장터 4지구 고인돌(1997)

덮개돌로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편마암으로 230×160×45cm, 195×160×55cm, 265×180×90cm의 크기이다.

13) 죽청리 장터 5지구 고인돌

웅천읍 죽청리 장터 마을 남쪽 구릉 밑에 있는 고인돌이다. 1지구 남쪽 150여m 떨어진 곳에 있다. 장터 마을에 전해오는 민간 신앙에, 마을 앞에 바위가 있으면 마을에

40 • 고인돌유적

종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하여 고인돌에 흙을 덮어서 마치 묘처럼 보인다. 화강암으로 된 덮개돌의 크기는 300×220×100cm 정도이다.



죽청리 장터 5지구 고인돌(1997)



죽청리 덕산봉 고인돌(1997)

14) 죽청리 덕산봉 고인돌

웅천읍 죽청리 덕산봉 마을 앞에 있는 고인돌이다.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장터 마을 서남쪽 6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의 크기는 300×280×125cm, 둘레 900cm이며 긴방향은 남북이다. 표면은 평평하고 둘레는 다듬은 모습이며 남쪽으로 뾰족하다. 덮개돌 밑에는 2개의 꺾돌이 있다.

15) 죽청리 갓굴 고인돌

웅천읍 죽청리의 서남쪽 끝 마을인 갓굴에 있는 고인돌이다. 부사 지구로 통하는 도로의 서쪽에 위치한다. 해발 25m 정도의 구릉에 있는데 주변 구릉은 부사지구 방조제 공사 때 흙을 채취하여 논으로 이용된다. 이 고인돌은 주민들에 의해 신앙의 대상으로 위해지고 있어 훼손되지 않았다.



죽청리 갓굴 고인돌(1997)

덮개돌은 편마암으로 260×255×160cm, 둘레 870cm이다. 둥그런 모습으로 상부는 다듬어졌다. 덮개돌의 남쪽에는 1개의 편마암 꺾돌이 보이는데 크기는 길이 135cm, 폭 35cm, 보이는 높이 13cm이다.

16) 소황리 고인돌

웅천읍 소황리 황굴 공군 사격장 안에 있는 6기의 고인돌이다. 옛 배다리 마을에서 낫물 마을로 통하는 길의 북쪽에 있다. 해발고도는 24m 정도이며 낮은 구릉의 정상부이다.

1호 고인돌은 동남쪽 끝에 있는 가장 큰 고인돌이다. 通德郎江陵崔公諱平集墓의 북쪽에 있다. 덮개돌은 편마암으로 350×330×150cm, 둘레 1010cm이다. 덮개돌의 위쪽은 평평하며 둘레는 둥글게 다듬어진 모습이다. 긴 방향은 북서-남동이며 덮개돌의 북쪽에는 보이는 길이 130cm, 폭 30cm, 보이는 높이 15cm의 편마암으로 된 돌 1개가 놓여 있다. 덮개돌의 남동쪽 밑에는 작은 차돌이 많이 놓여 있다.



소황리 고인돌(1997)



소황리 1호 고인돌(1997)

17) 황교리 고인돌

웅천읍 황교리 부주굴 마을 입구에 있는 10기의 고인돌이다. 낮은 언덕 위로 해발 고도는 25m이다. 고인돌군의 가운데에는 경주 김씨家의 묘지가 여러 기 있어 묘지를 만들 때 고인돌의 훼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교리 고인돌(1997)



황교리 7호 고인돌(1997)

7호 고인돌은 부주굴 고인돌군의 서북쪽에 있는 큰 고인돌이다. 부주굴 고인돌 중 유일하게 사암으로 된 덮개돌은 긴 방향이 남북으로 크기는 290×250×60cm, 둘레 840cm이다.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표면은 평평하고 둘레는 다듬어진 모습이다. 고인돌의 윗면에는 전면에 걸쳐 무수히 많은 풍화혈이 뚫려 있는데 큰 것은 폭 8cm, 깊이 5cm에 이른다. 풍화혈은 윗면에만 있고 측면에는 없다. 킴돌은 보이지 않고 덮개돌 북쪽에 80×80×76cm인 삼각형 돌 1개가 있다. 6호와는 610cm, 10호와는 410cm 떨어져 있다.

18) 노천리 1지구 고인돌

옹천읍 노천리 397(田)-390(畓)에 위치했던 고인돌이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이라 1999년 발굴조사 되었다. 해발고도는 3~4m 정도이다.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는 총 8기로, 석관묘 2기와 고인돌 6기이다. 유구의 분포는 남동쪽 경계 부근에 민묘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서 고인돌 4기와 석관묘 2기가 확인되었고, 나머지 고인돌 2기는 조사 지역 중간 지점과, 북쪽 조사 경계 지역에 인접한 곳에 각각 1기씩 분포하고 있었다. 출토유물은 석관묘에서 석검 2점, 고인돌 주변에서 석검 병부편, 석촉, 적색 연질토기편 각 1점이 출토되었다.

발굴 후 노천리 청룡 도로변에 이전 복원하였다.

1호 고인돌은 조사 구역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은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덮개돌의 평면 형태는 부정형이며 장축 방향은 북서~남동이다.

덮개돌의 규모는 길이 240cm, 폭 195cm, 두께 94cm이다.



노천리 1지구 고인돌(1997)



노천리 1지구 1호 고인돌(1997)

고인돌 하부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덮개돌을 제거하고 조사한 결과, 덮개돌이 놓인 위치의 중심에서 남쪽으로 길이 100cm, 폭 66cm의 판석형 석재 1매와 북쪽으로는 길이 104cm, 폭 86cm의 석재가 놓여 있었다. 이 석재들의 동, 북쪽으로는 전기(前記)한 석재들

보다 규모가 작은 소할석(小割石)들이 확인되었으나 하부구조의 형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이 고인돌의 덮개돌은 보령 지역에서 유일하게 석영맥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19) 노천리 2지구 고인돌

웅천읍 노천리 사그내 마을과 가라티 마을 사이의 새터에 있는 고인돌이다. 해발고도는 10m, 옛 해안선과 50여 m밖에 떨어지지 않은 언덕이다. 역암으로 된 덮개돌은 197×158×105 cm, 둘레 540cm의 크기이다. 묘를 조성하면서 훼손되었다.



노천리 2지구 고인돌(1997)

20) 성동리 고인돌

웅천읍 성동리 779(垜)에 있는 고인돌이다. 고인돌 주변은 해발 15m 정도의 평지로 지표는 모래 토양이고 땅 속에는 둥근 자갈이 들어 있는 지형이다. 마을 한 가운데에 고인돌이 있어 배꼽바위라고 부른다.

덮개돌은 역암으로 350×200×60cm, 둘레 880cm의 크기이며 긴 방향은 북동-남서이다. 윗면은 평평하고 둘레는 다듬어진 모습이다.

덮개돌 서쪽에는 1개의 쥘돌이 보이는데 크기는 보이는 길이 150cm, 폭 70cm, 보이는 높이 15cm이며 북서-남동 방향으로 놓여 있다. 최근 보령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보존하고 있다.



성동리 고인돌(1997)

21) 관당리 고인돌

웅천읍 관당리 벼락재 정상 부분에 있는 3기의 고인돌이다. 이 고인돌 주변의 606호 지방도를 바로잡는 공사 때 주변의 목장성을 발굴하면서 청동기시대 돌널무덤이 발견

되었고, 돌갈이 출토된 바 있다.

1호 고인돌은 벼락재에 있는 고인돌 중 가장 동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덮개돌은 편마암으로 250×190×80cm, 둘레 700cm이다. 동쪽은 높이 80cm 정도로 두껍고 서쪽으로 얇아진다. 긴 방향은 동서 방향이다. 동쪽 부분에 덮개돌과 다른 석질의 꺾돌 1개가 보여 고인돌임을 말해준다. 2호와는 60cm 떨어져 있다.



관당리 고인돌(2001)

22) 구룡리 고인돌

용천읍 구룡리 고뿌래 마을의 비하재에 있는 4기의 고인돌이다. 밭 독에 고인돌이 분포한다.

1호 고인돌은 구룡리 고뿌래에 있는 4기의 고인돌군 중 가장 남쪽에 있는 큰 고인돌이다.

덮개돌은 편마암으로 365×210×60cm, 둘레 910cm이다. 꺾돌은 보이지 않는다. 이 고인돌 아래에서 돌널무덤이 발견되었다고 전한다.



구룡리 고인돌(2001)

10. 주산면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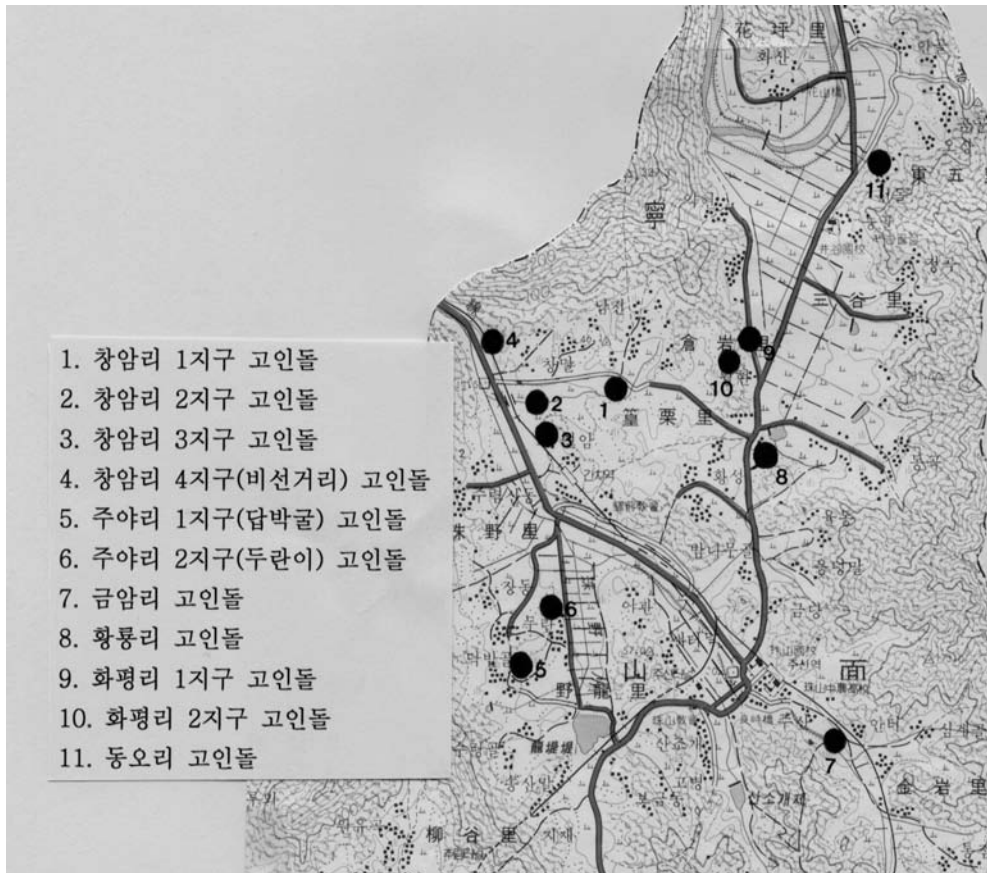
1) 창암리 1지구 고인돌

주산면 창암리 남전 마을 앞에 있는 2기의 고인돌이다. 고인돌이 있는 부분의 해발고도는 24m이다. 이곳에서 100여 m 떨어진 곳에는 기반암의 노두가 노출되어 있어 이런 돌을 옮겨왔을 것으로 보인다.

1호 고인돌은 남전 마을 앞에 있는 2기의 고인돌 중 서북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의 크기는 545×340×140cm, 둘레 1,495cm로 대단히 큰 고인돌이다. 덮개돌의 상부는 평평하고 둘레는 다듬어진 모습이고, 남쪽으로 약간 경사져 있으며 긴 방향은 동서이다. 덮개돌의 남쪽에서 보면 2개의 꺾돌이 동서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놓여 있어 무덤방의 남쪽 벽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모두 편마암으로 서쪽의 것은 70×30×30cm, 동쪽의 것은 80×30×30cm 크기이다. 2호와는 470cm 떨어져 있다.



주산면의 고인돌 분포



창암리 1지구 고인돌(1997)



창암리 1지구 1호 고인돌(1997)

2) 창암리 2지구 고인돌

주산면 창암리 창말 마을과 도롱굴 사이의 들 가운데에 있는 1기의 고인돌이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의 크기는 430×230×260cm, 둘레 1,130cm로 매우 높은 고인돌이다. 덮개돌의 윗면은 비교적 평평하고 둘레도 다듬어진 모습이다.

동쪽이 뾰족하며 긴 방향은 동서이다. 이 덮개돌의 남쪽에는 2개의 꺾돌이 높게 괴어져 있다. 덮개돌 동쪽에도 2개의 돌이 흠에 묻혀 일부만 보이는데, 꺾돌이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덮개돌의 서북쪽에는 3개의 비교적 크고 납작한 돌이 덮개돌과 닿은 채로 쌓여 있다. 편마암으로 된 최상부의 돌은 120×70×35cm, 중부의 돌은 170×150×60cm, 하부의 돌은 180×180×45cm의 크기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경지정리 때 옮겨진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창암리 2지구 고인돌(1997)

3) 창암리 3지구(도롱굴) 고인돌

주산면 창암리 도롱굴 마을 북쪽에 있는 2기의 고인돌이다. 이곳은 장항선 철도의 동쪽 10여m 떨어진 곳으로, 편마암 노두가 많은 50m 높이의 구릉 기슭이다. 고인돌이 있는 곳의 해발고도는 20여m이다.

1호는 북쪽에 있는 큰 고인돌이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의 크기는 470×430×240cm, 둘레 1,420cm이다. 덮개돌의 윗면과 밑면은 극히 평평하며, 동쪽과 남쪽 면은 평면을 이루고 나머지는 둥근 모습이다. 긴 방향은 동서이며 덮개돌 밑에는 여러 개의 꺾돌이 보인다.

무덤방의 남북 길이는 170cm이며, 동서 길이는 이보다 크다. 최근 주민들이 무덤방을 파헤쳐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다.

2호 고인돌은 작은 고인돌이다. 밭둑에 묻혀 있어 잘 보이지 않았으나, 주변이 침식되어 드러난 고인돌이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260×170×75cm, 둘레 660cm 크기이며 긴 방향은 남북이며 남쪽이 뾰족하다. 덮개돌 밑에는 4개의 꺾돌이 있어 무덤방을 이루는데 무덤방의 크기는 90×40cm이며 긴 방향은 남북이다. 1호와 340cm 떨어져 있다.



창암리 3지구 1호 고인돌(1997)



창암리 3지구 2호 고인돌(1997)

4) 창암리 4지구(비선거리) 고인돌

주산면 창암리 507-1번지 비선거리 마을에 있는 3기의 고인돌이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3기이고,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2기가 묻혔다고 한다.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꺾음돌은 보이지 않지만, 2개의 돌은 흑색 역암이고 하나만 편마암으로 되어 있어 모두 다른 곳에서 옮겨온 돌임을 나타낸다. 서북쪽에 묻힌 고인돌 1기는 일부가 드러나 있는데 석질은 편마암이다.



창암리 4지구 고인돌(1997)

5) 주야리 1지구(답박굴) 고인돌

주산면 주야리 답박굴에 있는 3기의 고인돌군이다. 주야리 274(垵)에 2기, 329-4(田)에 1기의 고인돌이 있다. 이곳은 주림산 서쪽에 발달한 산록완사면(山麓緩斜面)으로 해발고도는 40m 정도이며 주변은 모두 완만한 사면이다.

1호 고인돌은 답박굴의 남동쪽에 있는 중심 고인돌이다. 주변에는 주택이 들어서 있고 고인돌이 있는 곳은 과거 덩불(옛 쓰레기장)로 이용되었던 듯하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340×210×90cm, 둘레 900cm의 크기이며 윗면은 평평하고 둘레는 다듬어진 모습이다. 덮개돌의 동쪽



주야리 1지구 고인돌(1996)

밑에는 2개의 썸돌이 보인다. 덮개돌의 동쪽 부분은 6:25 사변 중 방공호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착했다고 하므로 하부구조의 상당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2호와의 거리는 240cm이다.

6) 주야리 2지구(두란이) 고인돌

주산면 주야리 산 20번지 두란이 마을 뒤에 있는 4기의 고인돌이다. 두란이 마을 정자나무 뒤쪽의 묘지 주변에 있다.

2호 고인돌은 중앙에 있는 고인돌이다.

서쪽 부분은 땅에 묻히고 동쪽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의 크기는 197×120×65cm이다. 윗면은 평평하고 둘레는 각이 뚜렷하다. 덮개돌 밑에는 검은 사암으로 된 썸돌이 덮개돌의 동쪽변과 나란히 남북으로 놓여 있다.



주야리 2지구 고인돌(1997)

7) 금암리 고인돌

주산면 금암리 안터마을 앞에 있는 10기의 고인돌군인데 그 중 9호 고인돌이 대표적이다. 9호 고인돌은 고인돌군의 북쪽에 있는 중심 고인돌이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298×220×100cm, 둘레 910cm의 크기로 윗면과 밑면은 평평하고 둘레도 다듬어졌다. 긴 방향은 북서-남동이다. 덮개돌의 밑에는 여러 개의 썸돌이 보인다.



금암리 9호 고인돌(1997)



금암리 고인돌(1997)

덧개돌은 무덤방의 서북쪽에 치우쳐 있어 동남쪽으로 무덤방의 일부가 드러나 있다.

북쪽에 있는 꺾돌의 크기는 75×20×20cm(높이)이며 동쪽의 것은 막음돌로 20×10×10cm, 20×10×10cm로 두 개다. 남쪽에도 두 개의 꺾돌이 있는데 서쪽의 것은 90×36×20cm(높이), 100×35×30cm(높이)의 규모이다. 동남쪽에 있는 막음돌은 덧개돌에서 벗어나 있다. 크기는 55×20×25cm(높이)이며 동남 방향으로 기울었다.

이 막음돌 북쪽에는 80×30×20cm(높이)의 꺾돌이 있다. 위의 돌들로 이루어진 무덤방의 크기는 230×100cm의 크기이며 긴 방향은 북서-남동이다.

8) 황률리 고인돌

주산면 황률리와 삼곡리 사이의 경계 지역에 있는 3기의 고인돌이다. 2기(1·3호)는 황률리 지역, 1기(2호)는 삼곡리 지역에 있다.

1호 고인돌은 가장 서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편마암으로 된 덧개돌은 235×155×70cm의 크기이다. 윗면은 사다리꼴로 평평하고 둘레는 직선이다. 남동쪽으로 약간 기울었으며 수평의 층리를 가지고 있다.

덧개돌 동쪽 380cm 떨어진 곳에는 수직의 층리를 가진 길이 115cm, 폭 30cm, 높이 45cm의 편마암 1개가 땅에 수직으로 박혀 있으며 그 옆에는 세 변이 각각 90×90×70cm이고 두께 40cm인 편마암 1개가 있다. 땅에 박혀 있는 돌이 원래의 꺾돌이고 삼각형 돌은 꺾돌이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덧개돌은 꺾돌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긴 방향은 북동-남서이다.



황률리 고인돌(1996)

10) 화평리 1지구 고인돌

주산면 화평리 성드라에 있는 1기의 고인돌이다. 해발고도는 약 45m로 작은 골짜기 가운데의 평지이다. 덧개돌은 분암으로 320×200×290cm, 둘레 920cm로 다른 고인돌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덧개돌의 표면은 분암의 풍화 특성을 반영하여 둥글고 매끈하다.

덧개돌의 남쪽과 서쪽에는 여러 개의 돌이 있는데 서쪽에 있는 것은 편마암으로 70×30×50cm(높이), 남서쪽에 있는 것은 편마암으로 80×40×35cm(높이)이며 서남쪽 모서리

끝에도 작은 분암 1개가 있다,

남쪽에 있는 것은 편마암으로 35×30×10cm이며 덮개돌의 남쪽 밑에도 폭 40cm, 높이 30cm의 분암 1개가 꺾여 있다. 위의 돌들로 이루어진 무덤방의 크기는 200×100cm이다.

묘지 공사 때문에 이 고인돌 북서쪽을 굴착했는데, 길이 170cm 폭 100cm 두께 20cm의 평평한 돌이 출토되어 고인돌 옆에 놓았다.



화평리 1지구 고인돌(1997)

11) 화평리 2지구 고인돌

주산면 화평리와 창암리 사이에 걸쳐 있는 고인돌이다. 고인돌이 있는 곳은 해발 60m 정도로, 운봉산에서 내려온 구릉의 꼭대기이다. 서쪽 창암리 지역의 것을 1호 화평리 지역에 있는 것을 2호라고 하였다.

1호 고인돌은 창암리 지역에 있는 고인돌이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280×190×55cm, 둘레 730cm의 크기이다. 윗면은 평평하고 둘레는 다듬어진 모습이며 꺾돌은 보이지 않는다. 긴 방향은 동서 방향이다.



화평리 2지구 고인돌(1997)

12) 동오리 고인돌

주산면 동오리 선돌 마을에 있는, 1기의 선돌과 5기의 고인돌로 이루어진 고인돌군이다. 이곳은 동오리 마을의 입구로 웅천천의 범람원과 골짜기가 만나는 곳이다. 마을은 골짜기 주변에 들어서 있다.

남쪽에 지팽이바위라고 불리는 선돌이 있고 선돌 동북쪽 70여m 떨어진 곳에 마당바위라고 불리는 고인돌, 마당바위 북쪽 50여m 지점에 꼬깔바위라고 불리는 고인돌 4기가 있다. 모두 편마암이다. 주변 산사면에는 편마암 노두가 많아 주변에서 옮겨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을에는 옛날 갱구할머니가 앞치마에 마당바위를 싸들고, 꼬깔바위를 머리에 쓰고, 지팡이바위를 짚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마당바위가 치마폭에서 빠지는 바람에 지팡이바위를 꽃았으며 꼬깔바위를 떨어뜨렸다는 전설이 있다.



동오리 1호 고인돌(1997)



동오리 3호 고인돌(1997)

1호 고인돌은 선돌 마을에 있는 큰 고인돌이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775×470×210cm, 둘레 2,070cm로 초대형이다. 윗면은 극히 평평하여 벼, 고추 등을 말리는 장소로도 사용되며 둘레도 잘 다듬어져 있다. 덮개돌이 워낙 크고 지면에 가까이 있어 켜돌의 형태를 관찰하기는 어렵지만 밑에 1개 이상의 켜돌이 보이고 켜돌의 석질은 덮개돌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3호 고인돌은 동오리 바위 중 중앙에 있는 고인돌이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305×250×110cm, 둘레 910cm의 크기이다. 윗면은 비교적 평평한데 중앙이 갈라져 있으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켜돌은 보이지 않는다.

13) 동오리 선돌

주산면 동오리 선돌 마을에서 지팡이바위라고 불리는 선돌이다.

편마암으로 높이는 268cm, 지표둘레 240cm, 지상 1m 부분의 둘레 197cm, 2m 지점의 둘레 180cm이며 지표 부분의 폭은 100cm이다.



동오리 선돌(1997)